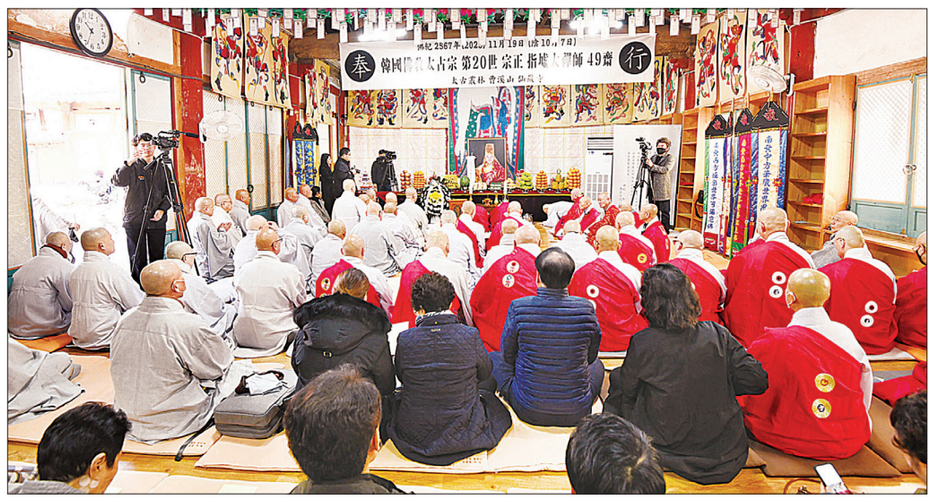
“환지본처 하시어 가르침 주소서”

태고종 전 종정 지허 대종사 49재 봉행

11월 19일, 순천 선암사 만세루서
“큰스님 뜻 이어 수행정진” 다짐
평생 선수행 · 선암사 중창 진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전 종정 지허 대종사의 49재가 11월 19일 순천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됐다.

태고종 전 종정 지허 대종사의 49재가 11월 19일 순천 선암사(주지 승범) 만세루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담 스님 등 종단 소임자 스님들과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월인 스님, 지허문도회장 승원 스님, 문도스님들이 참석해 지허 대종사가 하루빨리 중생 곁으로 돌아오길 기원했다.

행사는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총무부장 도성 스님의 행장 소개, 법담 스님의 열반송 낭독, 승원 스님 문도대표 인사말과 승범 스님 인사말, 총무원장 상진 스님 · 월인 스님 추도사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단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더욱 큰스님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절실한데, 다시는 그 크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가득하다”며 “가시는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실 것을 믿으며, 삼가 큰스님의 각령 앞에 일향구를 올리니 안양국에서 왕생하시어 소요자재 하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은 “추운 날씨에 참여해 주신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문도들은 부단한 수행정진으로 조사의 가풍과 선암사의 사풍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대표 승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스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기쁜 일이 하나 있고, 애통할 일이 하나 있다. 기쁜 일은 내 상좌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것이고, 애통할 일은 상좌가 깨달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상좌보다 깨닫지 못함이 애통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저희는 큰스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법요식에 이어 참가대중은 49재 의식으로 지허 대종사와의 이 생의 인연을 회향했다.

한편 지허 스님은 1956년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용탐선원, 통도사 극락선원, 미래사 토굴, 수덕사, 상원사, 심원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했다.

지허 스님은 1979년 평생의 수행처였던 선암사 금둔사터를 발견하고 복원 및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금둔사 주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선암사 주지, 중앙선원장, 중앙원로의원, 선암사 부방장을 역임하고, 2020년 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추대되었다.

평생 선수행과 선암사 중창, 선다 보급 등에 진력했던 스님은 10월 2일 금둔사에서 법랍 67세 세수 83세로 입적했다.

“불자들 의지처 될 도심 포교도량으로 성장”

화엄사빛고을포교원, 2주년 기념법회

연성 스님 “대학생 전법 활동에 기여”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이 11월 18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구례 화엄사가 광주지역 도심포교의 원력으로 건립한 화엄사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11월 18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화엄사 석경박물관장 우견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문도스님들과 광주불교연합회 고문 도계 스님, 김대원 신도회장, 화엄사 화엄회 허재현 회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2주년을 축하했다.

2년간의 주지 소임을 맡아 빛고을포교원을 이끌고 있는 연성 스님은 “불교대학에서 그간 80명이 졸업하는 등 개원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량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며 “개원 이후 많은 도움을 주신 화엄사 대중스님들과 지역 사암,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 스님들과 신도들의 함께 하는 마음이 더해져 사찰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스님은 대학생 전법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도 밝혔다. 스님은 “호남대학교 불교동아리 활동 지원 등 대학생들이 불교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청년포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를 대표해 참여한 도계 스님은 축사를 통해 “광주불교의 모든 대중을 대신해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도 “불과 2년 만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빛고을포교원이 화엄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포교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찰이 새롭게 개원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불자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겨야 한다. 빛고을포교원이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불자들의 삶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도 ‘남편나무’ 글귀를 통해 축하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신도들은 발원문을 통해 “빛고을포교원 청정도량을 인연한 모든 불자가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마다 지닌 큰 뜻을 이루고 한 송이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어나 우주 법계를 무량한 빛과 생명으로 장엄하기를 불보살님께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신임 공동대표에 법공 스님

2023 정기총회…내년 사업 결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가 11월 17일 광주 나무숲센터 3층 담마홀에서 ‘2023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공동대표에 법공 스님(문빈정사 주지)을 선임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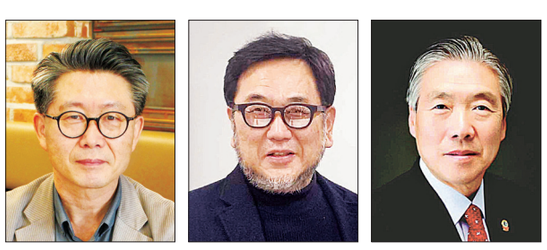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결산과 2024년 사업계획, 2023년 수지결산 및 2024년 예산안을 결의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임원스님들과 사무국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으로 이룩했다”고 활동을 격려했다.

해청 스님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며 “녹색불교아카데미와 녹색불교경전학교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33회 산해원 문화상 수상자 발표

배한봉 · 이용민 · 이상연 선정
12월 4일, 성주사서 시상식


배한봉 이용민 이상연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가 산해원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조민규)를 열어 제33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배한봉 시인, 예술 부문에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행원상에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을 각각 선정했다. 언론 학술 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산해원 문화상은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창원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제정한 상이다.

이번에 문학 부문 수상자인 배한봉 시인은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 후 ‘육탁’ 등 6권의 시집을 포함한 총 9권의 저서를 펴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시 ‘우포늪 왁새’가 수록됐고, 소월시문학상 대상, 경남문학상 등 국내 유수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는 통영국제음악제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 본부장, 재단 대표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총괄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부문 대표축제로 성장 발전시켰다. 특히 통영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되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 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되는 등 세계 정상급 국제축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행원상 부문 수상자인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왔다. 게다가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장학 사업을 펼쳤다. 라이온스협회 총재로도 활동하며 사회봉사를 선도하는 등 지역 문화 창달에 힘썼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3시 창원 성주사에서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상진 스님, 경남교구종무원 발전 기원

11월 16일, 연석회의서…종단 관심 당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경남교구종무원 스님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교구 발전을 기원했다.〈사진〉

태고종 경남종무원(원장 환명)은 11월 16일 경남 창원 원각사에서 교구 주지 연석회의 및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도스님들이 총무원 집행부를 믿어 주면 더욱 열심히 종단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태고종 종조 태고보우 국사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중국에서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구종무원장 환명 스님은 “태고종 경남교구 종도스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활기찬 모습으로 지금 종무원 신청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고 “총무원이 안정되면서 지방 종무원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발전과 경남교구종무원의 발전을 위해 소임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종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상진 스님에게 전달했다. 상진 스님도 경남교구종무원 원로스님들에게 대장경판을 증정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상진 스님은 경남교구 종무원스님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밀양 부은사 주지 지원 스님은 태고종 승려연수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연수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교수협의체를 구성,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논의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주 보덕사, 정여 대종사 초청 특별법회

정여 스님 “자비도량 되길” 거듭 당부



울주 보덕사(주지 효암)는 11월 17일 보덕사 대웅전에서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똑같이 맑고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맑고 청정한 그 마음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본래 부모로부터 받은 맑고 깨끗한 몸을 이제는 기도와 염불 또 수행을 통해서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 자신도 행복하고 또 주변도 행복하고 점점 부처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보덕사 법회에서는 동참자들로부터 때 묻지 않는 본연의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서원이 느껴진다”며 “보덕사 도량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도량, 맑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도량,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도량, 학비가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학비도 내주는 도량, 노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자비도량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여 스님은 보덕사 주지 효암 스님에게 보덕사 불사를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계묘년 가을 산신재 봉행

자비의 쌀 3톤 진안군 전달도



신비의 돌탑군으로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된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가을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11월 21일 돌탑 앞에 설치된 특별법단에는 전국각지에서 생산된 공양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자비의 쌀이 진설됐다.

1부 행사는 공로패 · 감사패 수여와 신도회장 임명장 수여, 자비의 쌀 전달, 인사말,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산신재에서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신도들의 무량수경 독송, 소지공양, 전북무형문화재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39위 신장법문, 산신청, 지전춤이 이어졌다.

진성 스님은 윤복길 전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탑사 윤금상 전국신도회장, 박선자 수석부회장, 김경은 총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진안군은 김승학 복성개발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붓다봉사단은 복성산업개발과 태원건설, 혁신금속의 후원으로 마련한 자비의 쌀 3톤(10kg 300포대)을 진안군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의 탑을 축조한 이갑룡 어른께서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월 9일에 산신재를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127년이 지났다”면서 “이갑룡 어르신은 산신재에 모아진 기금을 모아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에 전달하곤 했다. 뜻을 기리는 의미로 진안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 스님과 신도대표가 무대에 올라 무량수경을 함께 독송했고, 동참 대중들은 소지공양을 올리며 모든 국민의 화합과 평화,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종단협, 디저트로 감미로운 여행

제12회 전통음식 문화한마당 개최



한국의 떡과 과자를 전통 방식으로 재현, 어른 세대와 또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디저트를 소개하고 맛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해남사 주지)는 11월 17일 울산 해남사 앞마당과 문화공간 해남에서 제12회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디저트로 떠나는 감미로운 미감여행’을 주제로 열린 전통음식문화 한마당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디저트가 소개됐다. 특히 한국의 떡과 과자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K-디저트는 한국의 발효식품과 치즈 등을 활용한 점에서 인기가 높았다.

100여 종의 다양한 디저트가 선보여진 이번 행사는 울산지역의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지역색을 살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마선영 요리연구가는 울주배로 만든 백설기, 봉계항우쌀로 만든 증편, 울산담감으로 만드는 고명 등을 선보였다.

개막식에서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고단한 일상에서 달콤한 디저트로 하루의 시름을 잊을 수 있듯,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울산 시민불자들의 고단함을 비워주는 달콤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남사를 대표해 김영자 신도회장은 심민령 울산 중구 부구청장에게 백미 200포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울산 중구청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나눠줄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